

# 다큐·로코·여행...풍성한 '광주극장'



'2차 송환'



'아나이스 인 러브'

가을의 초입, 광주극장이 다채로운 상영작으로 10월의 막을 연다.

평균나이 90세 이상, 살아있는 이들은 10명 남짓... 한국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존재로 알려진 비전향 장기수를 다룬 영화 '2차 송환'이 오는 6일 광주극장에서 상영된다.

'2차 송환'은 북한으로의 전향을 위해 2차 송환 운동을 전개하는 장기수들의 고통과 회한, 인간미를 담은 다큐멘터리다.

비전향 장기수는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사상을 포기하지 않고 북한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이들을 말한다. 지난 2000년 9월 2일, 비전향 장기수 63명이 1차로 북한에 송환됐다. 하지만 당시 46명의 장기수는 여러 이유로 송환되지 못하고 남한에 남아 있다. 영화는 당시 송환되지 못했던 비전향

장기수 이야기 다룬 '2차 송환'

퀴어 로맨스 '아나이스 인 러브'

연예인 덕질 이야기 '성덕'

자매 여행기 '지금 이대로가...' 등

장기수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2004년 영화 '송환'을 제작한 김동원 감독은 1992년부터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작업해왔다. '2차 송환'은 2000년 9월 북한으로의 1차 송환 당시 강제로 전향서를 썼다는 이유로 송환 대열에서 배제된 2차 송환 희망자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영

화는 광주극장에서 오는 6일 오후 4시 40분, 7일 오후 7시, 9일 오후 1시 등 총 3차례 상영된다.

13일 상영하는 영화 '아나이스 인 러브'는 이기적이고 변덕스럽지만 사랑스러운 여자 주인공 아나이스가 자신에게 반한 다니엘이 아닌 다니엘의 파트너 에밀리에게 빠져들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다룬다. 배우 출신 사를린 부르주아 타케 감독의 첫 장편 데뷔작으로 퀴어 로맨스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외에도 스타에서 범죄자로 추락한 연예인을 다룬 그시절 덕질 이야기가 담긴 다큐멘터리 '성덕', 외모와 성격, 취향과 사고방식이 다른 자매가 아버지를 찾아 여행을 떠나는 과정이 담긴 영화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도 상영 중에 있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 예술의 힘으로 헤쳐온 '라틴아메리카 역사'

31일 '11시 음악산책'

반도네온 이어진 킨텟 공연

라틴아메리카 역사와 예술을 함께 만나볼 수 있는 인문학 콘서트가 오는 31일 열린다.

광주문화예술회관의 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이 광주공연마루에서 진행된다.

강연 주제는 '리들은 파도를 넘어. 라틴아메리카'로, 신대륙의 발견과 함께 시작된 라틴아메리카 시련의 역사와 이를 예술의 힘으로 헤쳐온 이야기기를 느껴볼 수 있다.

이날 강연은 콘서트 가이드 김이곤의 깊이있는 해설과 라이브 연주도 진행된다.

1부 '총,군,쇠'에서는 '브라질풍의 바흐', '엘 콘도르 파사(철새는 날아가고)'를 만나볼 수 있다. 2부 '혁명, 리베라, 칼로'에서는 남미 국가들의 장기 독재와 부패 등 혼란기를 살피며 영화 '프리다' OST '우는 여자', 멕시코를 대표하는 노래인 콘수엘로 벨라스케스 '베사메 무초'를 연주한다. 3부 '사가 사라진 세상'에서는 민중 시인이자 정치 사상이 파블로 네루다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 '일포스티노' OST 메인테마 등을 만나볼 수 있다. 4부 '리들은 파도를 넘어'에서는 부에노스아이레스로 향한다. 민중들의 그늘진 일상, 그 속의 애환과 슬픔을 담은 보카, 탱고의 시작을 알아본다.



연주는 이어진 킨텟이 무대에 선다. 반도네온 이어진을 비롯, 바이올린 이시현, 피아노 정철규, 콘트라베이스 이상권, 클래식기타 김보림이 참여한다. 관람료 전석 1만원. 문의 062-623-8236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 한글날 행사 참가자 모집

대한독서문화예술협, 9일까지

576돌 한글날을 맞아 우리말 겨루기 가족 골든벨, 공공언어 개선 공모전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에 참여할 참가자를 모집한다.

(사)대한독서문화예술협회(대표 심명자)는 '한글사랑-우리말 지킴이 되는 날'을 표어로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 참가자를 오는 9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기념행사는 오는 16일 오후 1시 광산구 월계초등학교 강당에서 진행된다.

먼저 우리말 겨루기 가족 골든벨은 '우리말 겨루기 기술 문제은행'을 토대로 진행하며 최종 4명을 가린다.

공공언어 개선 공모전은 '아름다운 우리 언어 살리기'를 주제로 평소 공공기관에서 사용되는 문구에 등장하는 외국어, 외래어 등이 난무해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대회는 으뜸상 1인, 비금상 1인, 보람상 2인을 선정해 각각 시상상·단체장상을 수여하며 부상으로도 위치, 백화점 상품권 등을 지급한다.

참가 대상은 초등학생 1인을 포함한 2-4인 가족이면 된다. 카카오톡 채널 '대한독서문화예술협회'에 접속해 게시된 오픈스 폼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062-385-3800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재벌 2세 성장기 섬세하게 표현한 배우 양병열

## '으라차차 내 인생'서 첫 주연 "거북이처럼 배우 길 걸을 것"

"그동안 선하고 모범적인 캐릭터들을 주로 맡았는데 감차열은 철없고, 날카롭고, 예의도 없는 캐릭터라서 도전해보고 싶었고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최근 막을 내린 KBS 일일드라마 '으라차차 내 인생'에서 첫 주연을 맡아 상처 많고 절없는 재벌 2세의 성장기를 섬세하게 표현한 배우 양병열은 오디션 당시를 이렇게 떠올렸다.

그가 연기한 감차열은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고 작은아버지에게 입양된 뒤 회사 경영권을 두고 그를 견제하는 어머니와 형에게서 벗어나 독립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인물이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다짜고짜 반말하는 등 안하무인이지만 어머니와 형에게는 한없이 무르다.

"어쨌든 어머니와 형이 되어준 사람들이잖아요. 감차열은 걸로 드러내는 것보다 마음이 깊고, 정이 많은 사람이예요. 그래서 한때 친구였던 차승주가 못되게 굴고, 어머니와 형이 견제해도 내치지 못했죠."

극중 감차열은 밝고 긍정적인 인턴 서동희(남상지 분)를 만나 사랑에 빠지면서 사랑을 대하는 방법을 배우고 성장한다.

길었던 촬영을 끝낸 양병열은 모처럼 휴식을 즐기고 있다고 한다. 시청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은 전작 KBS 주말드라마 '신사와 아가씨' 촬영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으라차차 내 인생' 주연을 맡아 지난 1년 동안 쉴 틈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배우는 캐스팅 되지 않으면 사실상 백수인데 계속 일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운이 좋았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우로 진로를 정한 그는 삼수 끝에 한양대 연극영화과에 입학했다. "대



학 합격 소식에 팔짝 뛰어오르며 기뻐하시는 아버지를 보고, 제 삶이 저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껏 저를 지탱해주시던 부모님을 위해 성공하고 싶어요."

그는 "작품 활동으로 돈을 벌면서 부모님께 금전적으로 효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며 웃었다.

2016년 SBS 일일드라마 '당신은 선물'로 데뷔한 양병열은 JTBC 웹드라마 '마술학교'에서 천재적인 천체물리학박사를, MBC 드라마 '웃소매 붉은 굿동'에서 덕임의 오라비를 연기하는 등 다채로운 배역을 소화해왔다.

활동 계획을 묻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저는 순발력이 느려요. 스스로 '나는 토끼가 아니라 거북이'라고 항상 되뇌요. 예체능 계열이다 보니 주변에 정말 뛰어난 사람이 많거든요. 외모가 완벽하거나, 암기력이 뛰어난 거나. 배우의 길은 개인의 노력도 정말 중요하지만, 운에 따른 요소도 큰 거 같아요. 저는 천천히 그러나 항상 앞으로 나아가는 게 목표입니다."

/연합뉴스

## '공조2' 26일만에 600만 돌파

올해 한국영화 3번째

영화 '공조2: 인터내셔날' (이하 공조2)이 2일 600만 관객을 돌파했다.

CJ ENM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0분 기준 영화 공조2의 관객수가 600만명을 넘어섰다. 개봉 26일만이다.

올해 한국영화에서는 '범죄도시2', '한산: 용의출현'에 이어 세번째다. '공조2'는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를 제치고 올해 개봉한 영화 중 흥행 4위에 올라섰다.

올여름 최고 흥행작인 '탑건: 매버릭'이 개봉 30일째 600만 관객을 넘어선 것보다 빠른 속도라고 CJ ENM이 전했다.

공조2는 글로벌 범접 조직을 잡기 위해 다시



만난 북한 형사 '림철령' (현빈)과 남한 형사 '강진태' (유해진), 뉴페이스인 해외파 FBI 요원 '잭' (다니엘 헤니) 등의 삼각 공조 수사를 그린 영화다. /연합뉴스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